

부산시, 外人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정주까지 단계별 지원

부산형 유학생 유치 지원 TF 회의 지원 사업·정부부처 정책 공유 베트남·몽골 등서 유학 설명회



부산시는 '부산형 유학생 유치양성 계획'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부산형 유학생 유치 지원 전담 조직(TF) 회의'를 지난 4일 개최했다. /부산시

부산시는 '부산형 유학생 유치양성 계획'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부산형 유학생 유치 지원 전담 조직(TF) 회의'를 지난 4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을 주제로 지역 대학 부총장 및 국제처장, 부산상공회의소 및 부산경제자유구역총협회 부회장,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단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담당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대학, 산업계, 정부 부처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취업·정주까지 단계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 대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 등 '유학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대학의 유학생 지원 사업과 정부 부처의 유학생 지원 정책 등 기관 간 정보를 공유했다.

시는 유학생 이공계 비율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 연계 인재를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학생 유치 국가를 다원화하며 고급 인재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아래 지역 대학과 함께 유치에서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 등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형 유학생 유치 지원 전담 조직 회의'와 함께 대학과 소통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부산 유학 설명회를 부산 지

역 대학과 함께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방문한 국가의 현지 교육 관계자를 부산에 초대해 지역 대학과 함께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는 최근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해 많은 정책과 지원을 발표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비자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

다. 유학생 졸업생의 구직·인턴 기간을 확대하고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등 인재 유치 분야를 다변화하기로 했으며, 첨단 분야 해외 인재 대상 '최상급 비자'와 한국전 유엔(UN) 참전국과 주요 경제 협력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학하기 좋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 3만명 유치 ▲유학생의 이공계 비율 30% 확대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40%까지 확대,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스터디 부산(Busan) 30K 프로젝트(Project)' 계획을 발표한다.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통계서비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학생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고, 부산 지역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대비 25% 증가해 1만 5천 명 정도다. 유학생 이공계 비율은 1.2% 증가해 13.2%며 취업 구직 비자 전환율은 4.6% 증가해 26.6%로 단계별 목표를 달성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광주시가 소상공인 육아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를 돕는 '소상공인 육아지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은 1시간당 1만원(월 60시간 한도)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사용료를 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1인 여성자영업자가 임신·출산 중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1개월에 100만 원씩, 최대 3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곡성군 '심청어린이대축제' 화려오세요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를 주제로 한 심청어린이대축제가 전남 곡성지역에서 펼쳐진다.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동안 열리며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막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합창대회·포스터 공모전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축제기간동안 매직버블과 별문 서커스쇼가 펼쳐지며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디즈 2000콘서트' '심청호콘서트', 관소리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효녀청'이 무대에 오른다.

/곡성(전남)=양수영 기자

산청군 캐나다에 농특산물 1.1억 수출

경남 산청군은 생비량면에 위치하고 있는 ㈜미미에프에서 이승화 산청군수, 김수환 산청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산청군 수출협회 임원, 수출업체, 희창물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농특산물 캐나다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수출길에 오른 농특산물은 오부친환 경쌀, 떡 5종, 도라지청, 각종 차 등 10개 업체의 30개 품목에 수출 규모는 1억 1700만원 상당이며, 딸기 등 신선농산물이 아닌 가공 식품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청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

경북 청도군은 필리핀과 라오스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118명) 환영식을 가졌다.

환영 행사는 외국인 근로자 통장개설과 마약검사, 근로자와 고용농가주의 만남과 교육, 격려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농가주 교육에서는 상호 갈등 예방을 위한 근무일지 작성 방법, 월 임금 산정 기준과 공제 내용 등을 안내했다.

특히 고용농가주를 대상으로 필수 준수 사항과 인권 침해 예방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추가 교육도 실시했다.

/청도(경북)=나영조 기자

경북도, 5년간 1998명 교사 중도퇴직

5년 미만 초등교사, 중도퇴직 많아 모두 25년 이상~35년 미만서 급증

경북에서 최근 5년간 교사들의 중도퇴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경북에서 2019년 358명, 2020년 361명, 2021년 408명, 2022년 434명, 지난해 437명 등 모두 1998명의 초·중고 교사들이 중도퇴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초등교사는 937명, 중학교 교사는 678명, 고등학교 교사는 383명이다.

초등교사는 5년간 145→184→196→194→218명, 중학교 교사는 121→105→139→151→162명, 고등학교 교사는 92→72→73→89→57명씩 중도 퇴직했다.

초등교사 937명 가운데 5년 미만은 108명, 5년 이상 15년 미만은 62명,

15년 이상 25년 미만은 60명, 25년 이상 35년 미만은 333명, 35년 이상은 374명이었다.

5년 미만의 교사들이 5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의 교사들보다 두 배 정도로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크게 달랐다. 5년 미만인 16명, 5년 이상 15년 미만이 25명, 15년 이상 25년 미만이 48명, 25년 이상 35년 미만이 481명, 35년 이상이 108명으로 나타나 초·중교사 비율이 가장 적었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5년 미만이 18명, 5년 이상 15년 미만이 15명, 15년 이상 25년 미만이 40명, 25년 이상 35년 미만이 250명, 35년 이상이 60명으로 중학교 교사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초·중고 교사 모두 25년 이상 35년 미만 구간에서 중도 퇴직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광주시립수목원, '황금연꽃바나나' 개화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서식하는 '황금연꽃바나나'가 개원 1년된 광주시립수목원에서 꽃망울을 터뜨렸다. 황금연꽃바나나 1그루가 지난달 6일 처음 꽃을 피운데 이어 같은달 23일 다른 나무에서도 꽃망울을 펼쳤다. 황금연꽃바나나는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견되는 바나나의 한 종류다. 열매 대신 꽃을 피운다. 꽃의 색이 황금색을 띄며 9~10개월동안 유지돼 오랫동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서식하는 '황금연꽃바나나'가 개원 1년된 광주시립수목원에서 꽃망울을 터뜨렸다. 황금연꽃바나나 1그루가 지난달 6일 처음 꽃을 피운데 이어 같은달 23일 다른 나무에서도 꽃망울을 펼쳤다. 황금연꽃바나나는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견되는 바나나의 한 종류다. 열매 대신 꽃을 피운다. 꽃의 색이 황금색을 띄며 9~10개월동안 유지돼 오랫동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광주시립수목원

목포시,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올해 상반기, 총 3600여건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등 대상

목포시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암환자·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암환자에게 223건(2억6700만원), 희귀질환자에게 8361건(5억6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암환자에게 137건(1억7400만원), 희귀질환자에게 3494건(3억900만원)을 지원했다.

암환자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성인과 소아 암환자로 나누어져 있다.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을 연속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 환자(신청일 기준 18세 미만)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 충족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백혈병 3000만원, 기타 암 2000만원(조형물세포이식 시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질환을 진단받은 후 산정특례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질환은 1272개(희귀질환 1248개, 중증난증질환 24개)로, 특히 올해는 옥수수 전분을 먹어야 하는 당원병 환자에게 전문 구입비 지원이 신설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도 수산식품, 中 온라인몰 입점 박차

다각적 수출확대 추진 지원

경남도가 국내 수산식품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 14억 온라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도는 수산식품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수산식품 기업의 중국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 소비자 구매반응과 수산식품평가·판매 확대를 위한 다변화 전략 방안을 모색했다.

'수산식품 기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은 중국 대표 온라인몰인 티몰에 입점을 희망하는 국내 수산식품 기업 21곳을 선정해 제품별 맞춤형 수출 컨설팅, 라이브 방송 광고, 쿠폰 할인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2억 600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해외 마케팅 지원, 가공공장 시설 지원사업과 상품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